

Table of contents

1 열성경련(Febrile convulsion)	2
----------------------------	---

1 열성경련(Febrile convulsion)

오후에 퇴근해보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타운 근처의 클리닉에 있다고 해서 급히 나갔다. 들어보니 한나가 콧물+기침+열로 아프다가 열성 경련이 3번째 와서 병원에 왔다는 거였다. 역시 별달리 해주는 건 없었고, 다시 경련이 오면 Middlemore 병원으로 가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다. 금요일 병가를 내고 같이 지냈는데,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나가 다시 경련을 했다. 이번에는 약 30초 이상이었다. 와이프가 첫 경련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을 나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 해주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있을수만도 없었다.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갔다. 컨디션이 안 좋은 한나는 체온/혈압/심전도 등의 기본검사에도 울면서 힘들어했다.

요로감염 점검을 위해 수집 bag을 채웠는데 소변이 채워진 걸 확인하고 staff 호출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설사로 인해 오염이 되어 다시 채집해야 했다. 그러는 와중 몇 시간만에 볼 수 있었던 의사는, 정상적인 열성경련이며 열만 잘 케어해주면 된다고 했다. 요로감염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서 다시 소변채집을 시도했는데 겨우 성공해서 결과를 기다렸다. 30분이 넘어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오래 걸렸다면, 의사의 확인하에 간단 검사라도 하고 알려준다고 했다. 결과는 정상. 하지만 퇴원을 위해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한 시간 넘게 아무 진척이 없었다. 간호사도 안 보이고 의사도 안 보이고. 겨우 간호사를 찾았더니 의사에게 3번이나 얘기했다고 했다. 마침 자리로 돌아온 의사를 찾아가니 그제서야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참 편하게들 일한다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나는 바로 똥아 떨어졌고 다음 날 아침 여느때처럼 일어났다. 컨디션도 좋고 열도 오르지 않아서 해열제도 필요없었다. 다만 콧물과 간헐적인 기침만 남았는데, 이와 동시에 내가 콧물/재채기가 시작되었다.

부모가 된다는 거, 그건, 생각보다 어렵다.